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세양조경개발을 찾아서...



김창옥 | 세양조경개발 대표
(사)한국조경수협회 명예회장

남도 명산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이 자리하고
경호강 맑은 물이 휘돌아 나가는 청정 관광의 고장
경남 산청군에 자리한 우리 조경수협회 김창옥
명예회장의 세양조경개발을 찾았다.



진입로 전경

명불허전 산청 농장

김창옥 명예회장의 세양조경개발은 산청군의 남쪽 진주시 경계 지역인 단성면 소재지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단성 IC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단성면 시월리라는 부락의 한적한 고갯길옆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농장 입구에는 아무런 간판이나 출입문도 없이 단순한 쇠사슬 한 가닥으로 막아 놓은 진입로를 들어서면 신기하리만치 옆의 산과는 전혀 다른 잘 가꾸어진 오래된 정원 같은 농장이 나타난다.

도로변에서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판 세상 같은 풍경이 펼쳐질 줄이야. 더구나 이곳 농장은 2002년도에 처음 개간한 곳으로 8년 밖에 안 된 농장이지만 아주 오래된 느낌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정서에 맞는 조경수들을 짜임새 있게 배치한 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무 하나 하나가 명품으로 가꾸어져 아주 고풍스런 멋이 한껏 풍기는 풍광이 역시 명예회장님은 어딘가 다른 데가 있구나 하는 명불허전이란 옛 말이 실감나게 느껴지는 농장이다.

명품들의 향연

이곳 농장의 조경수들은 모두가 명품들이다.

그렇다고 수종들이 고가의 희귀목들도 아닌 그저 흔하고 대중적인 조경수들이지만 그 나무 하나 하나에 온갖 정성과 기술을 다해 명품 조경수들로 가꾸어 놓았다.

그는 보통 조경인들이 나무를 밀식 속성으로 재배하여 규격묘만 되면 출하시키는 양적 위주의 조경업을 지양하고 예술성과 상품가치가 뛰어난 고품질의 조경수 생산을 목표로 농장을 가꾸고 있어 이곳 세양조경산청농장은 그야말로 명품 조경수들의 향연장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악지역인 지리산 아래 산청 땅에다 제주도나 따듯한 남쪽지방에서만 자라는 난대수종들을 일찍부터 잘 적응 시켜 육지의 재래수종과 조화롭게 커나가고 있다.

산청군의 숨은 명소 한국형 조경수 생산, 모범농장

산청군은 산악지역이다. 전국의 산이 총 4,440개소라는데 그중에서 각 지자체 중 2번째 많은 58개의 산이 산청군에 있고 지리산 국립공원의 절반은 호남지역에 절반은 경남의 함양·산청·하동의 3개군에 있으며 그

중 산청군이 40%이고 산림면적 비율도 78%가 되는 산촌으로 명산인 지리산 천왕봉(1,915m)과 황매산(1,104m) 응석봉(1,099m)의 고봉들과 지리산을 오르는 최단 코스인 중산리 계곡, 골이 깊고 험한 대원사 계곡, 마지막 빨치산으로 유명해진 험준한 내원사 계곡 등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들로 산악지역 특유의 고산지역인 관계로 남쪽 지방이지만 겨울 추위가 매섭기로 이름난 곳에 특유의 기술력과 철학을 가지고 난대 활엽수 재배를 시도하여 성공함으로써 지금은 난대·온대·한대 수종들이 복합된 모범농장인 “한국형 조경수재배 모델”로 선정 되어 경상대학·진주산업대학·순천대학·서울시립대학과 산림조합 중앙회 및 조경관련 단체와 학교에서 조경수 재배의 기술지도 교육 농장으로 활용하는 산청군의 숨은 명소이다.



대학졸업기념피중 반송앞에서...

어린 시절 꿈 조경업의 시작

그는 1945년 진주시 초전동에서 박달나무 등 특수 활엽목을 이용하여 방직공장에서 사용하는 북을 만드는 목재가공업자인 기업가 집안에서 3남3녀중 2남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 200평이 넘는 널찍한 집안 정원에 놀며 심겨진 꽃과 나무를 보고 조경에 흥미를 느끼던 것이 고등학교도 진주농림고등학교 원예과를 나오고 대학도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원예과를 나오다 보니 어릴적 꿈인 조경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1964년 대학을 입학 한 후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하느라 1972년에 졸업한 그는 6개월간 서울의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으나 항상 꿈이었던 조경수 재배를 위하여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당시에는 식량생산이 최우선 이었던 시절에 반대하는 부모님과 친지들을 설득하여 집안의 농지 3,000평에 은행나무·단풍나무·향나무·히말라야시다 등 당시 유행하던 조경수를 심으면서 조경인의 길로 들어섰다.



가이스까향나무 단지



반송포지



황금 메타세콰이아

홍가시나무 포지

새마을 운동에 헌신

그의 고향 진주시 초전동은 시내 중심지와는 멀리 떨어진 북 동쪽 외곽 지역으로 새마을 운동이 일기 시작한 70년대 초에만 해도 낙후된 지역이었기에 청년 농부인 그는 고향을 살리겠다는 애향심으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다.

고향 초전동의 새마을 청년회장(1회)을 맡아 “하면 된다”는 정신과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으로 초창기 새마을 운동을 이끌며 마을길 확장 및 비만 오면 다닐 수 없는 진흙탕 농로 길을 막자갈을 이용 개량하는 등 지역 개발과 경제 활동을 이끌고 불우 청소년 돕기 소년 소녀 가장 지원활동과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한 결연 사업 등 사회사업을 펼쳐 새마을 협의회장을 거쳐 1998년에는 제3대 진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 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지금도 고향 마을에선 누구보다 존경받는 원로 지도자이다.

뒤늦은 농장 개설

그는 70년대 초반 조경업에 일찍 뛰어 들었지만 막상 농장다운 농장 없이 남의 토지를 빌려 18년간을 재배만 전념하다 2002년에야 지금의 산청 농장 15ha 45,000평의 산림을 구입 처음으로 대 면적 농장을 조성하게 된다.

농장 부지로서는 토질과 교통편 등 지리적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한 그는 뒤늦게나마 제대로 된 농장을 꾸며 보고자 부지 물색부터 후보지를 18개소나 돌아본 끝에 19번째에야 어렵게 지금의 산청 농장을 선정하여 이제껏 농장 없는 설움을 한꺼번에 떨쳐내기도 하듯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남들이 20~30년을 걸리는 일을 6년 만에 이루어낸 조경의 귀재이다.



꽃무릇



최고수형의 반송



농장전경과 지리산



배롱나무와 지방도로

단기간에 이룩한 성공의 비결

“나무는 공해나 기후와 토질에 잘 견디는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 보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조경수재배 철학이다.

공해가 있는 곳은 공해를 줄이고 토질이 나쁜 곳은 토질 개량을 하고 관, 배수 시설과 비배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신념으로 우선 도로와 나무심을 포지를 개설하고 지하수를 개발 관수 파이프를 매설하여 어디든 물을 줄 수 있고 상록수와 낙엽수·난대수종과 한대수종, 교목과 관목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며 가능한 수형 좋은 나무들만 선별하여 이식 한 후 명품생산을 목표로 전지와 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진입로 변에는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고 도로 바닥 지면을 토종 금잔디를 심어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줌과 동시에 새로 훼손된

흔적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오래된 느낌이 나고 따라서 농장은 단기간에 명품이 되었지만 나무마다 멋지게 손질하느라 대신 그의 손마디는 온통 불거진 관절로 엉망이 되었다.

수종 선택과 조경인의 자세

- 나무를 심고 가꾸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
- 양적 생산을 지양하고 질적 생산을 추구 한다.
- 다양한 기능을 가진 조경수를 선택 한다.

이것이 새로이 조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물어올 때 하는 대답이란다.

단순히 퇴직 후에 할일이 없어서 또는 소일거리 삼아 막연한 기대심리로 하다가는 실패하기 쉬워 나무를 가꾸려는 강한 의지가 꼭 필요하고 공사용 납품 규격만 되게 미적인 감각 없이 다량 생산하는 것 보다는 하나라도 최고의 명품을 키워 내는 것이 종당에는 더 유리

하며 조정 수종은 꽃과 잎과 여름의 그늘. 가을 단풍과 열매까지 고루 갖춘 것이 좋으며 요즈음누구나 관심사인 건강과 직결되는 공해 물질 정화 능력과 전자파를 방지하거나 해충을 퇴치 할 수 있는 복합 효능을 가진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의 농장에는 자생 수종인 팔배나무가 많다. 봄에 흰 꽃과 여름의 녹음 그리고 가을의 단풍도 일품이지만 특히 삭막한 겨울에 빨간 열매를 보고 물려드는 새들이 있어 유망 수종이란다.



진입로변의 대형 홍가시나무

난대수종 예천과 수요 전망

이곳 세양조정 산청 농장을 찾은 이들이 가장 놀라고 감탄 하는 것이 높은 산간인데도 각종 난대수종들이 제주도나 남쪽 해안의 여는 농장처럼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다.

농장 입구부터 하얀 꽃땡강나무들이 활짝 피어 있고 키가 3m가 훌쩍 넘는 붉은 잎이 일품인 대형 홍가시나무들이 줄지어 심겨져 있으며 농장 여기저기에 굴거리나무·후피향·은목서·중가시·붉가시·홍가시·붓순나무와 종려나무들이 다량으로 또는 한 두 본씩 추위를 모르고 자라고 있는 것이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했던 것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그는 일찍 지구 온난화로 인한 난대수종의 수요가 확대 될 것이며, 앞으로 조경도 색조를 강조한 칼라 조경이 중요시 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 시작 한 것이 적중하여 지금 이곳 난대수종들은 고지대에서 적응된 것이

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육지 수종들과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므로 산청군청은 물론 경남도청과 산림청등 관공서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오는 개발 모델이 되고 있다.

탁 트인 전망과 인근의 관광지

이곳 농장은 3개의 작은 능선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산 중턱으로 당초 방치된 밤나무 밭과 아카시아나무가 뒤 엉킨 황폐지를 개간 사방에 흩어져 있던 조경수들을 한데모아 현재 50여 수종 약200만본을 재배하고 있으며 기존에 자생하던 소나무중 해송은 조형목으로 육송은 장송으로 손질하여 멋스런 조경수로 새롭게 탄생 시켰으며 능선 봉우리엔 예쁜 잔디 정원을 조성하여 탁 트인 시야가 멀리 지리산 천왕봉이 바라

농장과 단성C 주변전경



다 보이고 그 지리산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단성IC가 있는 면소재지의 주택들과 맑은 경호강변의 논, 밭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인근 지역에는 문익점이 복화씨를 가져와 처음 재배했다는 면화 시배지가 있으며, 성철스님의 생가와 피서지로 유명한 백운계곡이 있고, 이웃 마을에는 이씨 고택과 최씨 고택이 있는 옛 담 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전통마을인 남사에담촌이 자리하고, 지리산과 경호강이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학구파

그는 지금도 조경관련 대학 교수들과 연구기관의 관계자와 깊은 교분을 갖고 조경수 재배와 새로운 품종을 찾아 항상 노력한다.

친환경 재배를 위한 병충해 방제를 농약이 아닌 자연 추출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삽목이나 어린 나무들은 토양산도(PH)까지 맞춰주어 재배하고, 지하고를 높이기 위하여 밀식 재배 후 상부를 절단하여 새로운 가지 발생을 유도 시키는 법과, 산지 이식 목의 활착율 제고 방법 등을 연구 주변에 보급 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황금 메타세콰이아 500주를 구입 했으나 운송 관계로 현재 42본만 살았지만 화려한 황금빛 잎과 왜소형으로 앞으로 선풍적인 인기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대학 졸업 기념으로 첫 파종한 반송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기념 될 만한 나무들은 끝까지 지키고 보살피며 붉은 빛 꽃무릇이 애잔하게 피어있는 농장을 보며 원로

조경인인 그의 열정과 낭만과 겸손을 갖춘 투철한 책임감과 학구열에 빛나는 모범 조경인의 표상을 본다.

앞으로의 꿈 휴식, 문화 공간의 수목원 조성

그는 처음부터 단순 조경수 재배만 18년간 고집해오다 90년대 중반부터 조경식재공사를 하여 남강댐이나 부산, 진주지역 아파트 조경공사를 맡아 자연친화적 생태 숲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 조경수협회에는 70년대 후반에 가입하여 이후 서부경남 지부장과 본회 회장을 맡아 2년간 역임하고 2007년부터 2년간 본회 회장을 맡아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조경수 유통센터 설립 확대와 조경기술 보급과 관공서의 조경과 신설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역작인 조경수 40년사를 발간하는 등 조경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8년에 철탑 산업훈장을 수여 받았다.

현재 조경업으로 연간 6~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경식재나 공사는 하지 않고 최고 품질의 조경수만 재배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농장에는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춰 휴식과 문화공간을 겸한 조경수 교육,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는 수목원을 만드는 것이 꿈 이란다.

불교 신자인 그는 부인 박주연(63세) 여사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으며 둘다 장성하여 현재 좋은 직장을 다니는 다복한 가정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조경인이다. 

진디정원 전망대

